

4주차

일본군 ‘위안부’ -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 (1940년대)

김 지 민

학습목차

01.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등장

- '위안부' 용어 문제
- '위안소' 설치의 논리
- '위안부' 제도의 특수성

04. '위안소' 운영과 생활

- '위안소' 운영
-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 인권 유린의 범죄

학습목표

02. 여성들의 동원 과정

- 강제 동원의 근간이 마련되다
- 끌려간 여성들

05. 전쟁 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

- 생존과 귀환
- 후유증

학습내용

03. 그녀들의 이야기

- 피해자들의 증언
- 공통된 피해

4차시

‘위안소’ 운영과 생활

학습목차

학습목표

- 일본군 '위안소'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위안소' 운영
-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 인권 유린의 범죄

이번 차시에는...

- '위안소'에 동원된 여성들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위안소’ 운영

일본군의 '위안소' 관여

- 많은 경우 업자가 경영 및 관리
- **일본군이 '위안소' 존립과 운영의 모든 면에 관여**
- 업자는 군의 허가를 받아 '위안소'를 설치했고,
여성들의 성병 검사결과와 매출 등을 군에 보고

“

제9장 위안소 사용규정

제59 방침

완화 위안의 길을 강구하여 군기 숙정에 일조로 하려고 한다.

제60 설비

위안소는 일화 (日華) 회관 남측 담내에 설치하여 일화회간부속 건물 및 하사관, 병용 건물로 구분한다. 하사관, 병의 출입구는 남측 정문으로 한다. 위생상에 관하여 누(樓, 시설)주는 소독 설비를 놓아 둔다. 각대의 사용일은 좌와 같이 정한다.

호시 부대 일요일

구리이와 부대 월, 화요일

마쓰무라 부대 수, 목요일

나리타 부대 토요일

아치와 부대 금요일

무라타 부대 일요일

그 밖에 임시 주둔 부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알림

제61 실시단가 및 시간

1. 하사관, 병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함

2. 단가

사용시간은 1인 1시간을 한도로 함

지나인 1엔 00전

반도인 (半島人) 1엔 50전

내지인 (内地人) 2엔 00전

이상은 하사관, 병이고 장교(준위(准尉) 포함)는 두배로 한다
(매독 방지와 관련면을 달다)

제62 검사

매주 월요일 및 금요일로 하며 금요일은 정례 매독검사(검매) 일로 함

검사시간: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함

검사 주임관은 제4 야전병원 의관으로 하며 병참 예비병원 및 각부대 의관을 보조한다.

검사주임관은 그 결과를 제3항 부대에 통보할 것

제63 위안소 이용의 주의사항은 좌와 같음

1. 위안소 내에서 음주를 금할 것
2. 금액 지불 및 시간을 엄수할 것
3. 여자는 모두 유독자라고 생각하여 방독에 관해 만전을 기할 것
4. 영업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금할 것
5. 술에 취한 자 출입금지

“

위안소사용규정,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 창저우주둔간내무규정

‘위안소’ 규정과 증언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

- ‘위안소’ 운영과 사용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있었다
- 일본군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 군인들의 폭력을 금했지만 사실상 빈번히 일어났다
- 일상적인 폭력, 학대, 고문이 일어났다
-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 구속



1938년 일본군 병참부가 관장한
현지 위안소 규칙



'위안소' 입구에 걸린 구호

“ 몸과 마음을 바친 야마토 여인들의 서비스,
성스러운 전쟁에 종사하는 승리의 병사들, 환영! ”

‘위안부’ 여성은 돈을 벌 수 있었는가?

- 군표는 돈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
- 사실상 감금 상태였던 여성들이 군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일본군 출신 일본인들의 증언

- 마츠모토 마사요시: 일본군 위생병 출신
- 1944년 중국 북서부에 주둔한 육군부대에서
‘위안부’들을 검진했다고 증언

마츠모토 마사요시의 증언

- 300명 규모의 부대에 부대에 6-7명의 한국인 '위안부'들이 있었다
- 그들은 분명히 '성노예'였다
- '위안부'들의 성병 검진을 돕고 병사들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
- 부대 바로 옆 '위안소'에 있던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은 엄두도 못낼 상황

네모토 조주의 증언

- 중국에 주둔한 부대 소속이었는데 그곳에 '위안소'가 있었다
- 군인들이 유흥을 위해 '위안소'를 방문했다
- 일본 군인들이 현지 여성에 성폭력을 가했다

인권 유린의 범죄

‘위안부’ 제도는 어떤 면에서 인권을 침해했는가?

- 1948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위안부’제도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세계인권선언 (유엔, 1948) (일부)

‘위안부’ 피해의 다층성

- 1 식민주의와 민족 차별에 바탕을 둔 범죄
- 2 인류사에서 반복되는 **전쟁범죄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
- 3 **아동 성매매 범죄**
→ 여러 중첩적인 특성과 차원이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보여줌

‘위안부’여성들을 피해자로서뿐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 바라보기

- 생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밝히고
‘위안부’ 운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남

피해자들의 증언을 더 찾아보면서 '위안부' 피해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다음 차시에서는

- 전쟁이 끝난 후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의 삶

SOURCES

[출처01] 아카이브814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디지털 아카이브 (<https://archive814.or.kr>)

[출처02] Wikimedia Commons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